

[해답]

1. ②

[해설] 평가적인 명제와 사실을 서술하는 명제를 구분하는 문제다.

2. ①

[해설] 종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실이 성립한다고 해서 종규가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규가 법적으로 성인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조건이다.

3. ④

[해설] 주어진 문장과 모순이 되는 문장은 “어떤 운전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이다.

4. ⑤

[해설] 설명과 논증을 구분하는 문제다 ⑤는 논증이며 나머지는 모두 설명임이다.

5. ③

[해설] 연역과 귀납의 차이를 묻고 있는 문제. 보기 중 나, 라는 귀납 논증이다. 나의 경우 어떤 표지판을 보고 그것이 주장하는 내용이 참이라고 주장하며, 라의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전제로부터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어 결론이 전제의 내용을 넘어서는 형식의 논증 구조다. 나머지 보기의 경우 타당성 여부를 떠나 모두 연역 논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6. ②

[해설]

	무용가	화가	가수	소설가
갑	Y	N	N	N
을	N	N	Y	N
병	N	N	N	Y
정	N	Y	N	N

7. ①

[해설] 두 진술 모두 참인 전제와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 후건 긍정과 전건 부정의 오류가 발생한 추론이다.

8. ④

9. ⑤

10. ⑤

[해설] 바른 의견과 지식이 모두 실천적인 행위 지침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⑤

[해설] ⑤는 죽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과 비교하고 있다.

12. ④

[해설] 두 사람의 추리가 모두 문제있는 것이기 때문에, 1, 2, 5는 답이 될 수 없다. 젊은이의 자세가 문제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1차적인 '증명의 부담'이 나이 든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잘못된 연역추리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증명의 부담'을 안고 있는 나이 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13. ④

[해설] 1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다면 쓰레기를 해변에 버리고 올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는 1의 자연스런 결과를 진술하면서 그 결과와 관련하여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를 싫어하는 개인의 자연스런 태도를 표출하고 있으며, 3은 미소한 쓰레기가 개인의 향유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4는 개인에 관한 주장인 1-3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을 넘어서서 개인과 타인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주장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5는 4에 따라 나오는 주장이다.

14. ④

[해설] 전제 모두를 긍정하고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 모순인 논증에서는, 전제들 모두 참이라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론이 명백히 거짓이라면, 전제들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어야 한다. 낙태 반대론자의 주장을 전제로 놓고 그 이외에 모두 참인 전제들을 추가하고, 전제 모두를 긍정하고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 모순인 논증을 제시하는 동시에 결론이 거짓인 결론을 도출시키면, 낙태 반대론자의 주장인 전제가 거짓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15. ①

[해설]

지문 A는 사회 (또는 집단) 차원의 결정을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 지문 B는 개인 차원에서의 결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지문 A의 내용이 옳다면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하며, 지문 B의 내용이 옳더라도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ㄱ’은 정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ㄴ’과 ‘ㄷ’은 지문 A에만 해당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16. ③

[해설]

- 보은의 의무가 선행의 의무 바로 직전에 오며 악행금지의 의무가 셋째로 와야 하므로, 선행의 의무는 첫째와 넷째 자리에 올 수 없으며 보은의 의무는 둘째와 여섯째 자리에 올 수 없다.
- 보은의 의무가 첫째 또는 여섯째 자리에 와야 하나 첫째 조건에 따라 보은의 의무가 여섯째 자리에 올 수 없으므로 첫째 자리에 와야 한다.
- 보은의 의무는 선행의 의무 바로 직전에 온다고 했으므로 그리고 보은의 의무가 첫째 자리에 와야 하므로, 선행의 의무는 둘째 자리에 와야 한다.

17. ②

[해설] 넷째에게 분배한 결과 남은 코끼리 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넷째에게 분배하기 전에 코끼리 2마리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셋째에게 분배하기 전의 코끼리 수는 6마리가 되고, 둘째에게 분배하기 전의 코끼리 수는 14마리가 되고, 첫째에게 분배하기 전의 코끼리 수는 30마리가 된다. 따라서 아들 넷이 돌보아야 하는 코끼리 수는 각각 16마리, 8마리, 4마리, 2마리가 된다. 이와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참인 진술은 ②번뿐이다.

18. ②

[해설] 지문은 하나의 결론과 네 개의 전제들을 나열한 것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배열함으로써 논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각 전제들은 하나의 결론적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전제1. 현대의 도시화된 가정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 전제2. 올바른 학교 교육의 목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인격을 함양하는 데 있다.
- 전제3. 사람의 인격은 유아기 때 거의 완성된다.
- 전제4. 주의깊게 조성된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 결론. 학교 교육은 필요하며 인격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 ③

[해설]

위 논증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전제 1: 고유명사의 의미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라면, “셋별은 개밥바라기와 같다”는 동일성 문장은 사소한 문장이 되어버린다.

전제 2(숨겨진 전제): “셋별은 개밥바라기와 같다”는 동일성 문장은 사소한 문장이 아니다.

-----

결론: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아니다.

\* 또는 문제의 논증을 귀류법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문제의 논증을 귀류법으로 파악했을 경우에는 위의 논증 분석과 다르게 분석될 것이다. 그러나 정답에는 변화가 없다.

20. ③

[해설]

- ‘ㄱ’은 “인간만이 도덕원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이 타종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문의 내용에 위배된다.
- ‘ㄴ’은 “도덕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은 단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인간들 사이에서만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낫다거나 못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지문의 내용에 위배된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침팬지에게는 그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예컨대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하여 개미를 잡아 먹는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진드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 “도덕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은 단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인간들 사이에서만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낫다거나 못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지문으로부터 ‘ㄷ’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송곳니와 발톱은 사자와 치타 모두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사냥을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길고 강한 송곳니와 발톱을 가진 사자가 치타보다 우월하다고 지문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 ‘ㄹ’은 “도덕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은 단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뿐이다. 따라서 인간들 사이에서만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낫다거나 못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지문의 내용에 위배된다.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속성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뿐이다.)

21. ③

[해설] 주어진 선택지는 모두 리처드 린 교수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사례들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리처드 린 교수의 비판자들은 지능과 신에 대한 믿음을 곧바로 연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사회, 경제, 역사적 요인들을 신에 대한 믿음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사회, 경제, 역사적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야 답이 된다.

만일 오늘날이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라면 ②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 대체로 신을 탐구하고 있을 공산이 크지만,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 다른 것의 탐구에 몰두할 공산이 크게 된다. 성인 대부분이 신 문제와 관계없이 생활하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①과 ②는 정답과 거리가 멀다. ④는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에서는 성인 대부분이 신을 믿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며, ⑤는 경제적 요인이 신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연령에 이르러 지능이 떨어진 후에

다시 신을 믿게 되는 사례가 적다는 것이 참이라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기술일 뿐, 어떤 사회/경제/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

22. ③

[해설]

- ㄱ: 제시문에서는 수정란에 (수족, 신경계 등이 생기지는 않았으나) 수족, 신경계 등의 인간의 '구성요건'이 구현되고 있으므로 수정란을 인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으로부터 수족, 신경계 등이 생기는 시점 이전부터, 즉, 수정란 시점부터 무고한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인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ㄴ: 수정란에 수족, 신경계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구성요건이 명백히 그리고 분명하게 구현된다고 해도 수정란에 (눈 또는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있으나) 그것을 만드는 순서와 방법은 입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 ㄷ: 'ㄷ'이 참이라면, 수정란에 수족, 신경계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구성요건이 구현되어 있다는 제시문의 진술은 거짓이 된다.
- 제시문에서 수정란을 폐기하는 것이 데이비스의 이익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수정란이 인간이므로 수정란을 폐기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장기를 이식 받을 사람의 이익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뇌사자가 아직 살아 있는 인간이라면, 그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듯 'ㄴ'은 제시문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 'ㄹ'에서의 논증으로부터 수정란에 인간의 모든 구성요건이 구현되어 있다는 제시문의 내용과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3. ④

[해설]

- ①은 귀납논증이므로 타당한 논증이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인 논증)될 수 없다.
- ②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어떤 P도 M이 아니다.  
어떤 S도 M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S도 P가 아니다.
- ③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P라면, Q이다.  
그러므로 P가 아니라면, Q가 아니다.
- ④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P라면, Q이다.  
P와 R이다.  
그러므로 Q와 R이다.
- ⑤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P라면, Q이며 R이다.

S이면, R이다.

그러므로 P라면, S이다.

24. ①

[해설]

¬: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한 논증이다.

$p \rightarrow q$

$\sim q$

$\therefore \sim p$

⊥: 다음의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p \cdot q) \rightarrow r$

$\therefore p \rightarrow r$

$(p \cdot q) \rightarrow r$

$p$

$\therefore r$

⊃: 다음의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타당한 논증이다.

$(p \rightarrow q) \cdot (r \rightarrow s)$

$p \vee r$

$\therefore q \vee s$

하지만 ‘브라질이 4강에 들지 못하거나 아르헨티나가 4강에 들지 못할 것이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25. ④

[해설] <나>의 원리 중 조건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거의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실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가>의 내용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의 내용 중 종소리와 함께 음식을 제공 받은 개가 침을 흘리는 반응의 조건화가 성립된 이후 종소리와 함께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가 처음에는 혼란을 느끼지만 동일한 조건이 반복되면 결국 침을 흘리지 않는 조건화가 성립된다는 사실로부터 반복성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소리와 함께 음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실험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개가 혼란에 빠지고 조건화에 실패한다는 것에서 일관성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가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리들이다.

이에 반해 ㉡의 경우 타당한 조건화의 원리이기는 하나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원리이다. 또한 ㉢의 경우 타당한 조건화의 원리도 아니며 <나>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이다.